

투데이 칼럼

외적이미지 사회

현대는 이미지시대, 디자인 시대, 외모사회시대 라고도 한다. '이왕이면 다홍치마' 라는 말의 의미도 떠오른다. 현실적으로 첫인상의 중요성, 면접의 중요성,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 방송인, 정치인에게도 외모의 중요성이 뚜렷이 존재하고 있다. 사람이면 누구나 호감을 주는 외모를 꾸미는 것이 사실이다. 영국과 미국의 국가 지표나 아르헨티나의 대학생 실험 결과 '외모 프리미엄'은 약 15% 정도로 나타났다고 한다. 매력적이고 잘 생긴 외모를 가진 사람들의 소득이 13%에서 23%정도 높다는 것이 취직율도 보통사람에 비해서 10%이상 높았고 투자자들이 자산관리자를 고를 때도 실력보다 그 사람의 이미지(외모)를 중시하는 시대가 되었다. '뭘을 수 있을 것 같은 얼굴' 쪽에 더 많은 돈을 맡겼다고 한다. 승진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굳이 행동경제학자들의 표현을 빌



김 양 옥

한국스피치리더쉽컨설팅 대표

리지 않더라도 일상의 판단과 선택은 합리성보다 직관에 좌우된다. '매력자본'의 저자 캐서린 하킴도 "북미에서 매력적인 남성이 14~28%, 매력적인 여성이 12~20%를 더 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캐서린 하킴은 '매력자본'과 외모 지상주의를 엄격하게 구분하였다. 각각의 다면적인 '매력' 요소를 폭넓게 인정하고 그것을 열심히 갈고 닦을 때 '자본'과 아름다운 결합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문제는 내면의 멋보다 겉모습을 중시하고 거기에 매몰되는 사회풍조다.

외모가 인생의 성패까지 좌우한다고 믿고 집착하는 것도 사회병이다. 외모 이미지를 중시하고 있는 사회가 성형열풍이나 다이어트 광풍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있다. 세계 1위 성형수술국이 된 것도 이런 강박관념의 결과였다. 서양에서는 2000년부터 이 같은 투카즘(Lookism)을 사회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인종과 성, 종교, 이념 등의 불평등을 존재했지만 21세기에는 외모가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말도 있다.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드만이 현대인을 '타인지향 인간'이라고 지적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과거에도 KAL기 폭파범 여인, 현상수배자 검거소식에도 여성경호원 외모 얘기가 더 화제인 게 현실이었고 방송인, 연예인, 정치인 등도 외모 보고 평가 하는 얘기가 많지 않는가? 물론 내면 성숙보다 외모 성형에 치우치는 사회에서는 겉모습이 모든 평가를 뒤흔들 수도 있다. 대학생이나 중, 고등학생들의 설문조사를 이용하면 '외모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가 89.5%, '외모 때문에 손해본 적 있다'가 62.5%, '더 나은 외모를 위해 성형수술에 동의한다'가 78.3%로 조사된 적이 있다. 현실을 인정도 해야 하므로 호감 받는 첫인상, 뭉뚱시 등 외모도 중요하지만 내적 성숙(예의, 교양, 지식, 능력 등)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우리 모두 외모도 중시하고, 내적 성숙과 인격, 인품을 대변하는 스피치기법 터득하여 호감을 주고받는 관계형성에 노력하여 성공, 행복의 길을 찾아보자.

사설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발전 가속화 기대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주목을 받고 있는 요즘이다. 전북도가 글로벌 식품 시장의 중심지로 키우기 위해 계속 애를 쓰고 있는 까닭이다. 보도에 따르면 70만 평의 단지에 5535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는 거다. 그 투자 규모로 보아 앞으로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발전 가속화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그같은 소식은 저번에 정부가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대한 방침을 밝힌 것을 생각나게 한다. 첨단 식품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한 거 말이다. 최근 들어서 실제로 전국의 여러 기업들이 전북을 투자처로 삼고 있는 것도 밝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구체적인 실행 과제로 식품클러스터에 전체 150개 기업을 유치하는데 그중 60%에 해당하는 90개의 기업을 연내에 유치 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익산의 식품클러스터의 관계자들은 더욱 힘내야 한다. 익산 식품클러스터는 전북의 식품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전국의 식품 산업을 주도해야 한다. 그게 눈앞에 다가 오고 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익산의 식품클러스터는 식품 벤처 분야에 활성화 붐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 청년 일자리 창출도 상당하리라

기대이다. 그래도 전북도와 익산시에 당부 하고픈 말이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그동안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속도감이 낮았다.도민이 본래 기대했던 것에 비하면 현재의 모습은 미흡하다. 지난해 보도된 뉴스를 보고 답답해 했던 게 다시 생각나는데 익산의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일반 산업단지 수준으로 전락할 위기라는 우려가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전북도와 익산시는 농림식품부의 약속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앞에서 먼저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야겠다. 여러 번 말했거나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익산의 발전과 함께 전북의 발전도 약속하고 있다. 익산 시민은 물론이고 도민들이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거는 기대는 대단하다. 본래 희망했던 바 그대로의 위용을 드러내게 되면 익산시는 그만큼 발전의 열매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명실공히 식품 산업의 중심지로 우뚝할 터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벨트 지역 공약이 실현되면 도내 농가들에게도 경제적 실익이 상당할 터이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국가식품 클러스터사업을 위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마음을 써야 한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아르헨 해변에 떠밀려온 범고래 구출



16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마르키타 인근 해변에 떠밀려온 범고래들을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해 구조대원과 자원봉사자들이 범고래에 물을 뿌려주며 작업하고 있다. 현지 관계자는 7마리의 범고래가 해안으로 떠밀려와 오도 가도 못하게 돼 구조대원과 자원봉사자들의 노력 끝에 6마리를 바다로 돌려보냈으나 1마리는 끝내 숨졌다고 밝혔다.

악수하는 이란-터키-러시아 정상



이란 로하니 이란 대통령(사진 왼쪽부터),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터키 앙카라에서 정상회담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 온 러시아·터키·이란 3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8년 반쯤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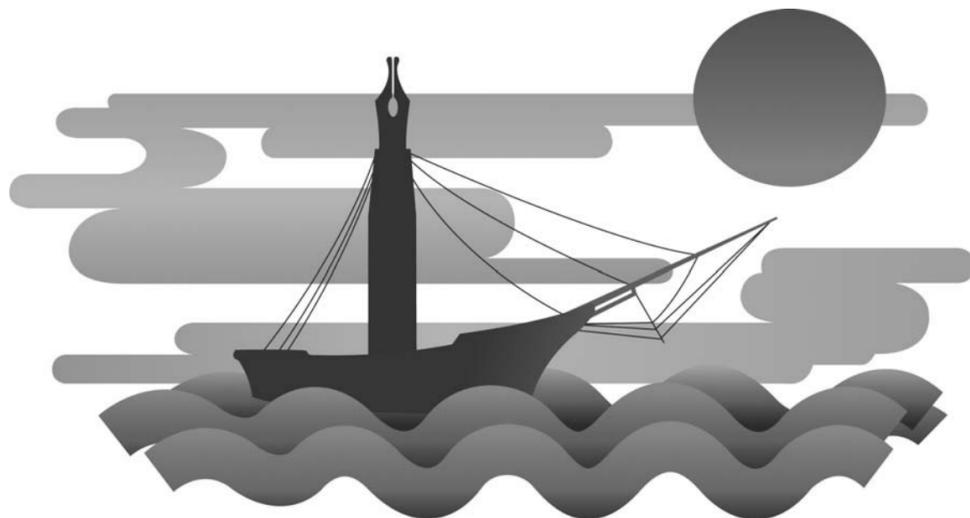
도내 고용률과 취업률 좋아졌나?

아직도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전북도는 그것과는 별도로 최고 관심사를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 쪽으로 돌려야 한다. 지역 성장 패러다임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여러 번 약속한 그대로이다. 전북도는 앞으로 그 말에 책임을 지는 자세로 일해야겠다. 지금의 이 시점에서 전북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우리 지역의 고용률과 취업률이 나아졌는지 궁금한 까닭이다. 지금 전북도에게 우리 지역의 고용률과 취업률이 나아졌냐고 묻는 이유가 있다. 최근의 보도들을 보니 뜻밖이다. 한국 전체의 고용률과 취업률이 높아져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 달 취업자 수가 2735만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5만여명이 늘어난 것이다. 그래서 한 신문사의 사설의 요지는 이랬다. 나아진 고용률과 취업률을 바탕으로 경제 활력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 전북 지역도 전국의 밝은 분위기 그대로 고용률과 취업률이

높아졌는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물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시점에서 전북도에게 주고픈 말은 분명하다. 분발해야 한다는 당부가 그것이다. 정규직은 오히려 예전보다 줄고 기간제나 시간제 일자리만 늘고 있다는 불만이 최근까지도 있었으니 말이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점에 전북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또 있다. 일자리 창출 약속이 어떻게 돼 가는 것인지 궁금하다. 전북도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 지역 성장 패러다임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면 그래야 한다. 전북도가 그동안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닐 테지만 능력 부족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저번에도 도내 근로자의 40%가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던 게 생각난다. 우리 전북의 현실이 이런 데도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규직 일자리 구하기에 목마른 이들의 정서를 생각해야 한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